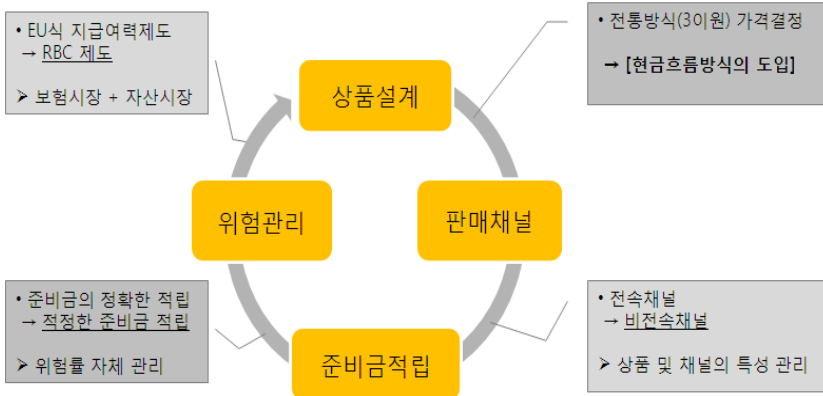


V. 결론 및 시사점

국내 보험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평가 기준이 보험료와 준비금은 물론 운용자산의 위험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보험회사는 보험료 결정과 준비금 평가에서 보험시장은 물론 자산시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준비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이나 유럽의 새로운 지급능력평가는 위험률을 안전할증과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생존담보의 지속적인 손해를 악화도 이런 요구에 부응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위험률의 차별화 니드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방식 보험료 결정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금흐름방식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나타난 새로운 보험료결정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런 현금흐름방식의 특성과 함께 새 방식이 지닌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감독제도의 일부로 자리 잡는데 현금흐름방식의 시행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주목하고 있다.

〈그림 V-1〉 현금흐름방식의 도입 여건



본 연구는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에 따른 순기능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고 있다. 첫째, 현금흐름방식을 통해 사망과 생존 등 미래 위험의 변화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결정과 조정이 가능하다. 전통방식에서는 상품개발 시점의 위험률에 일괄적으로 안전할증만을 부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므로 위험의 장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종신보험과 암보험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금흐름방식에서는 보험료 조정은 물론 보다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대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현금흐름방식에서는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보험료를 결정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목표이익의 설정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결정하기 이전에 수익성 분석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현행 전통방식에서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자본비용 등도 반영된다. 즉, 현금흐름방식에서는 리스크 인수에 따른 자본비용까지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회사의 내재가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금흐름방식에서는 다양한 가정을 적용한 현금흐름이 산출되므로 옵션 및 보증의 평가가 가능해지고 그만큼 복잡한 체계의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준비금 등 계리제도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옵션이 내재된 상품이나 사업비후취 상품 등의 개발도 지금보다 수월해 질 것이다.

넷째, 현금흐름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흐름방식의 자체적인 위험률 관리 절차는 보험회사 조직 간 협력을 요구하고 상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만 안정적인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금흐름방식의 현실적 적용에는 현금흐름방식에 대한 시장의 신뢰 결여나 기존 제도와 충돌 가능성 등 제도적 장애들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보험회사 내부의 프로세스 개선, 준비금 감독의 강화와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라는 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과 관련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정들과 추정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부서 간 합의와 상호 모니터링

(peer review), 각 조직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문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계리사의 역할 세분화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감독정책과 관련하여 상품규제 중심에서 준비금 중심의 건전성 감독으로 감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부실한 보험회사가 가격산출의 자율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가격 인하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현금흐름방식에 대응하는 표준책임준비금 등 건전성 강화 등의 통제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³⁶⁾ 따라서 보험료 산출과 준비금 평가는 상호의존적 관계는 탈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보험료 산출 및 상품의 출현은 소비자 공시의 강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되면 보험회사는 이원별 계약자 배당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고 그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비차익에 대한 필요 이상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은 전통방식과 비교하여 사업비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보험료 결정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상장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내재가치 정보의 공시나 캐나다 보험회사들의 정보공시는 향후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된 보험료에 관한 정보공시의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6)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에 대하여 외국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EU 상공회의소 등은 표준책임준비금 등의 통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합리한 가격인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